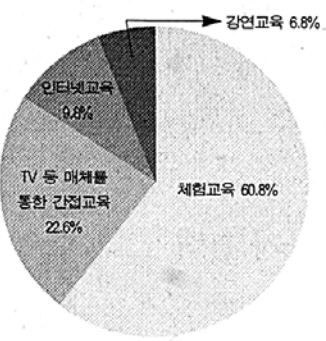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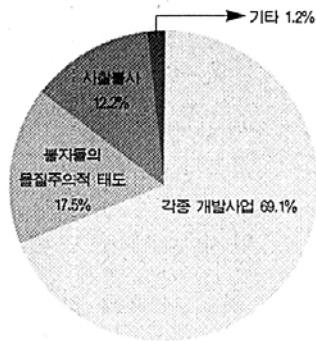
# 실천 이끌어 낼 환경교육 필요

7일 발표된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불교환경연대의 '불자들의 환경인식과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는 불교계에서 처음 실시된 것으로, 생명의 종교인 불교가 친환경적 종교임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불자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불자는 적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불자들의 의식을 실천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불자들이 선호하는 환경교육 방식 ●



● 사찰환경 체순원인 ●



## 조계종 환경위·불교환경연대 조사 내용

### ◎ 불교계 당면과제로 인식

'설문조사'에서 불자들의 96.3%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환경문제의 해결을 한국사회와 불교계의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불자들의 환경의식이 대단히 높음을 보여준다.

## 불자들 96%가 환경문제에 큰 관심 환경산업 국가 경쟁력 좌우... 육성해야 생태기행 등 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특히 응답자들의 95.2%가 사찰수행환경을 위협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개발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북한산 관동도로 공사나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공사에 대한 불교계의 전반적인 반대정서를 드러냈다. 또한 93.7%의 응답자가 환경문제 해결에 불교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해 지난 3월 '자연보전과 사찰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법불교도대회'가 단순히 비구니 스님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에 대한 불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임을 말해준다. 경제개발보다 환경보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96.2%에 이르렀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의견이 불교계의 보편적 정서임을 확인하게 해 준다.

### ◎ 친환경적 경제개발 희망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95.8%가 환경문제 개선이 장기적인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93.4%의 불자들은 만약에 친환경적인 상품이 나오면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구매행위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줘 환경산업의 집중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 친환경적 국가정책 수립을 지지하는 불자들이 총 80.5%에

이르고 있어, 불자들은 정부가 친환경적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 ◎ 불자들 현장학습 요구 커

불자들의 가장 선호하는 환경교육 방식은 현장 방문과 체험교육으로 60.8%가 이와 같은 직접적인 환경교육을 선호하고 있었다. 반면에 적극적인 환경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비율은 16.1%에 그쳤다. 또한 불자들의 79%는 환경단체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환경단체 회비를 낼 의사가 있다고 밝힌 불자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이는 불자들이 직접 현장 학습이나 환경운동을 통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큼에도 불자들의 환경의식에 환경교육이 부응하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사찰과 환경단체가 현장학습 위주의 생태기행, 사찰문화답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경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인터넷 프라 구축도 하루 빨리 달성돼야 할 일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 금동미륵대불 130년만에 복원

법주사, 7일 개금불사 회향·10만등 점등 법요식

### 시멘트불상 해체, 90년 청동으로 조성

### 미세구멍 메우고 옷·금분·금박 입히기

1천3백년간 미륵종찰(彌勒宗刹)의 맥을 이어온 속리산 법주사(주지 지명)가 7일 3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호국 금동미륵대불 개금불사 회향법회 및 10만등 점등 법요식을 개최했다.

이날 미륵대불 개금불사 회향식은 부처님께 금올리기 의식을 시작으로 법주사 주지 지명스님의 인사말, 부주지 무상스님의 경과보고, 법주사 율주 혜정스님의 미륵십선계 설계, 원드립 성공기원 헌동,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격려사, 법주사 조실 범행스님의 법어, 중앙총회의장 지하스님 교구부사주지대표 범정스님의 치사, 금오문도순상좌회장 성타스님의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정치권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노무현 민주당대통령후보, 박근혜 한국미래연대 대표, 정몽준 월드컵조직위원장 등의 축사가 줄을 이었다.

높이 33m, 무게 160여 톤으로 세계최대규모인 법주사 금동미륵대불 개금은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미세한 구멍을 메우는 과정에서부터 옷칠, 금 분칠, 금박 입히기 등 8 단계의 공정을 거치는 건식전기도 금공법으로 이뤄졌다.

본래 법주사 미륵대불은 서기

776년 진표율사가 7년간의 노력 끝에 금동미륵보살입상을 조성했다. 하지만 1872년 흥선대원군이 경북



### 정치권 인사들 '인산인해'

7일 열린 법주사 금동미륵대불 개금불사 회향법회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 장에는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한화갑 민주당 대표, 노무현 민주당 대

공을 축조하면서 미륵대불을 녹여 못과 화폐주조에 사용한다. 일제시대부터 다시 복원작업이 시작됐지만 6.25전쟁으로 미뤄졌다가 1963년 박정희 장군과 대원군의 손주며느리인 이방자 여사의 시주로 복원불사가 재개되어 그 다음해 5월 시멘트로 미륵 부처님이 조성된다.

1986년 붕괴직전의 시멘트 미륵부처님이 해체되고, 1990년 4월 청동 미륵보살상을 다시 조성했다. 하지만 불상의 용접 부위가 부식으로 얼룩지자 2년간의 불사 끝에 미륵대불을 금동으로 복원했다. 김원우 기자

령 후보, 박근혜 한국미래연대 대표, 정몽준 월드컵조직위원장과 충북도지사 후보인 이인종(한나라당) 구천장에는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한화갑 민주당 대표, 노무현 민주당 대

## "민족 평화 심는 미륵도량으로"

### 개금불사 회향 법주사 주지 지명스님



"미륵대불 개금불사를 계기로 십선계, 자비, 서원으로 민족평화를 심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주사 주지 지명스님은 이번 금동미륵대불 개금불사가 "흥선대원군에 의해 파괴된 불상을 130년 만에 금동 옷을 입힌 것은 불교의 위상을 바로세우는 의미가 있다"며 "권력에 의해 처참하게 철거된 미륵대불을 원형 복원하는 데는 일제시대부터 최근까지 여러 불자들

의 발원과 원력이 하나로 모여져 불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불사를 진행하며 80kg의 황금이 소요되고, 7억여원의 재원이 총동원되면서 큰 불사를 안중아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원래 법주사에는 금동 불상이 모셔져 있었고 조선말 정부에서 자금마련을 위해 몰수해간 이후 시멘트, 청동으로 모셨다가 원래대로 금동을 입힌 것이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미륵사상의 이념이 사회에 구현될 수 있도록 미륵불교 자료집 수 만권을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태고종 원로회의 이달중 구성

### 각 교구별 20일까지 의원 선출

고구별 20일까지 의원은 선출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전국시도교구총무원에 보냈다. 고구별 의석수는 서울 경기 각 2석,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제주 전남 전북 백령사 백령사 안정사 각 1석, 총무원장 추천 7석 등 총 27석이다. 한편 각 교구에서 선출된 의원과 총무원

장이 추천한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에 대한 심사를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실시한 후 25일 이후 당선자를 최종 확정한다. 원로회의는 △중앙추대권 △중흥개정안 인준권 △중앙총회에서 선출한 총무원장 인준권 △중앙총회의 총무원장 불신임안 인준권 △중단 비상시 중앙총회 해산 제정권 △중

## 불교 명절의미·행사진행 경험 등 수록

### '봉은사 법회와 행사 요람' 매뉴얼 발행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 412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총론, 법회행사의 기획에서 평가까지, 5대 명절, 재일, 법회, 기도, 특별행사, 부록 등 8장으로 구성돼 있다. '법회행사의 기획에서 평가까지' 편에서는 기획→준비→진행→회향 작업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준비할 것

과 유의점, 작업 일정, 평가 방법 등을 순차적으로 나열해 놓았다. '5대 명절' 편에서는 각 행사의 의미 및 프로그램, 추진방향 및 진행현황 등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특별행사' 편에서는 성지순례, 수계식, 예수재, 수련대회, 확립 및 선원 운영, 삼천배 철

# 영산작법 전통불교의식 전문교육

불교의식에는 규모에 따라 상주권공재, 시왕각배재, 생전예수재, 수록재, 영산재로 나누며 간단한 불공과 시식은 안채비성으로 모든 스님들은 알아야 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본의식 행위이다. 스님으로써 필수적 기본의식 이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므로 여법하게 행하여야 한다. 전통의식으로 여법하게 행하므로 대중을 한마음으로 이끌 수 있고, 환희심을 내어 굳건한 신심으로 기도정진 할 수 있습니다. 금번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 총무원 운천사에서는 영산회 주최로 의식을 배우고저 하시는 스님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촌동 99-7 번지 한국불교 태고종 광주 전남 총무원(운천사)
- 일 시 : 불기 2546년 음 5월 16일(양 6월 26일) 오전 10시~ 음 5월 22일(양 7월 2일)까지(일주일간)
- 접수일자 : 6월 15일 ~ 6월 22일 까지
- 교육내용 : 불공의식, 다비의식, 시련, 대령, 관욕, 시식, 신중작법, 사물(목탁, 요령, 태징, 북) 다루는법, 만바라 및 천수바라, 사다라니
- 교육비 : 5만원
- 준비물 : 가사장삼, 필기구, 세면도구, 기타
- 주 최 : 영산회
- 후 원 : 태고종 광주 전남 총무원
- 협 찬 : 광주불교방송국, 현대불교신문 광주지사, 주간불교신문 광주지사
- 접수 및 문의전화 : 062) 375-1820, 011-604-8902  
062) 222-4133, 016-651-6006 fax : 062) 381-0944

### 교육 일정 시간표

날 짜	시 간	교 육 내 용	강 사
6월 26일	오전 10시	입소식, 불공, 점심공양	보운스님·영산회 회장
	오후 2~5시	전체 교육내용 강의	
6월 27일	오전 09~12시	시련, 신중작법, 사물 다루는 법	보운스님
	오후 2~5시	사물 다루는 법, 만바라	영산회원 스님
6월 28일	오전 09~12시	불공의식	보운스님
	오후 2~5시	사물 다루는 법, 바리구단	영산회원 스님
6월 29일	오전 09~12시	대령관욕	보운스님
	오후 2~5시	천수구단, 바리	영산회원 스님
6월 30일	오전 09~12시	시 식(관음시식, 영반)	보운스님
	오후 2~5시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영산회원 스님
7월 1일	오전 09~12시	다비의식	보운스님
	오후 2~5시	전과정 정경	영산회원 스님
7월 2일	오전 09~12시	전과정 예·복습 및 정경	
	오후 2~5시	회 향(수료증 수여)	